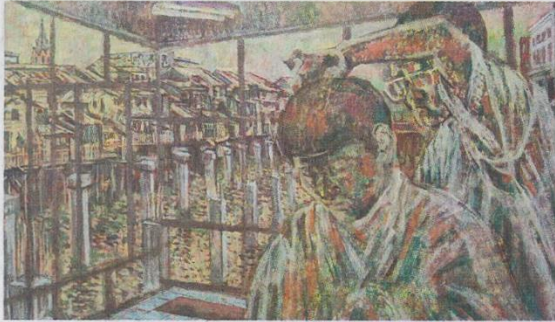


텃텃하게 흐르는 과거와 현재 풍경

February 7, 2019 | 노형석 기자



〈박태원의 천변풍경〉(2019)

텃텃하게 흐르는 과거와 현재 풍경

민정기 작가 개인전

세 연작의 연속되는 화폭에 1950~60년대풍의 낡은 이발소 내부가 텃텃한 빛질로 옮겨졌다. 머리 깎는 인물은 〈천변풍경〉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같은 세태소설로 유명했던 구보 박태원(1909~1986) 작가의 일제강점기 청년 시절 모습이다. 이발사는 앞머리카락을 몽땅하게 다듬고 앉은 구보의 앞머리카락을 몽땅하게 다듬으며 특유의 '갑바머리'를 만들어준다. 뒤편의 넓은 유리 창밖으로는 서울 청계천변의 과거와 현재가 잇따라 흘러가고 있다. 청계천에서 100년 전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과 1950년대 하천을 복개하며 기둥을 놓는 공사 광경, 2000년대 복개 구조물을 걷은 청계천가 거리에 클래스 올덴버그의 파배기 조형물이 설치된 모습이다. 지난 100년간 서울 시공간의 격변을 담은 이미지들을 배경에 두고서 머리 깎는 구보 작가는 정면으로 관객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상념에 잠겨 있는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굵은 붓 터치로 짙은 색채를 채워 넣은 이발소 안팎의 풍경 속에서 과거와 현재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구보는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화가 민정기(70)씨가 올해 그린 신작 〈박태원의 천변풍경 1·2·3〉은 완전히 새로운 창작품은 아니다. 10년 전 청계천에서 열린 박태원 문학그림 전시회 때 이미 기본 도상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새롭게 다시 그린 연작들은 여전히 신선하다. 어둡고 녹록한 색감, 구보의 얼굴과 몸에 유령처럼 씩씩한 회교무례한 덧칠 등이 어우러져 청계천이란 공간과 그곳에 살았던 인물들에 얽힌 역사와 현실이 교차한다. 이 '이발소 그림'

어둡고 녹록한 '이발소 연작'

구보 박태원 작가 청년시절 담아 현장 답사·작품 독해 기반으로 청계천변·도심 풍경 기발하게 묘사

들은 작가가 추억의 명소로 알려진 서울 만리동 이발소를 직접 답사하고, 박태원의 〈천변풍경〉을 독해하고 그 소설에 등장하는 배경 지역을 답사하고, 청계천 근현대와 관련된 역사자료를 섭렵한 뒤 나온 것이다.

〈·천변풍경〉처럼 도시와 역사공간과 산하의 풍경을 여러 시점으로 바라보고 하나의 화면에 녹여낸 민 작가의 신작 14점과 1980년대 이래 작업 변천상을 보여주는 구작 21점을 감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 별관 2곳에서 열리는 개인전으로, 상업화랑에서 열린 민 작가의 첫 전시다.

지난해 판문점 평화의 집 남북정상회담장의 배경그림 〈북한산〉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 민 작가의 그림들은 작품과 역사적 상상력에서만 우러나올 수 있는 기발한 묘사·표현이 촘촘하다. 이를테면,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사직동 풍경은 소설점의 끝에 놓인 사직단을 향해 색점과 풍경이 빨려들어갈 듯한 구도를 취한다. 답사 중 느낀 인문적 감성을 온축하면서 작가는 그림 속 인물과 풍경이 약동하는 '역사적 풍경화'를 그려낸다. 그것은 현실 풍경 속에서 역사와 시대의 기운이 종종 빠져나오는 '불온한 풍경화'이기도 하다. 3월3일까지.

글·사진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